

## 고넬료의 신앙

“베드로야, 일어나 잠아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축된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축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보자가 같은 것이 곧 하늘로 들리어 올라 갔습니다. (행 10 : 13-16)

위의 본문에 묘사된 사건은 초대 사도 시대에 교회가 형성되던 무렵,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과 온 무리들에게 임하시고 땅 위에 주의 교회가 이룩되어 가는 데서 생겨진 사건이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욕바의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권능을 행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때까지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신앙의 부흥 운동은 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뻗어 나가는 선교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도 행전 10장에서 전개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 중심의 선교로부터 세계 교회 선교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중대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 역사에 전파되게 된 서곡이 고넬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로마 문화와 전통에 무르익은 그의 사고 방식과 생활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선교의 방편으로 이용하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가운데 보고 베드로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리스도교가 세계 교회로 발전되어지는 중요한 도약적 의의를 지니고 있

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고넬료의 결단이나 순종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거의 때를 같이 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동물의 교훈은 그리스도 교회가 이방인들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한 것이다. 그 환상은 결국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속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고넬료는 한 마디로 해서 현대 세계에 사는 종교적인 인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와 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서도 자선 사업이나 인도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태도를 고넬료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맞이하는 교회로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별을 넘어서 저를 맞아들이는 자세를 베드로에게서 엿볼 수 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깨끗하다거나 거룩하다는 것, 속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정하신다는 점이다. 현대 교회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뒤야 할 것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성숙의 구별을 이에 비추어 설정한다는 일이 불신앙의 첫 시작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인간에게 위촉하셨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의 사실이 이러한 성숙의 장벽을 깨뜨린 것이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의 전통과 제도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의 메시지가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교가 이방인과 온 땅 위에 퍼지는 세계적 그리스도교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것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생겨진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애써 노력한 결과로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계기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은 접근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한 접근에서 각자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 (1) 사람의 만남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인연을 맺어 사랑의 생활을 시작할 때, 저들은 이러한 사랑의 결합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우연한 기회로 맺어졌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그보다 더한 존재의 뜻과 힘으로 이루어진 결합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어 가는 동안에 그 사랑의 결합의 신비성에 대해서는 더욱 감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만남을 이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두 사람에게 앞을 내다 보는 환상을 보여 주신다. 이처럼 사랑의 결합과 만남에는 앞을 내다 보는 태도가 앞서야만 한다. 만일 사람들이 뒤만 돌이켜 보거나, 현재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진정 창조적 사랑의 결합은 성립될 수 없다. 고넬료의 경우, 그는 인도주의자요, 종교적인 관심이 지극한 존재였지만 그가 자신의 이런 조건들에 만족하고 있었던들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을 것이

며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찾아 내려는 애타는 심정을 지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베드로를 만나길 바랐던가 하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봐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의 태도에서도 이방인을 맞이하는 크리스천의 사랑의 태도를 역력히 볼 수가 있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디까지나 유대인 중심의 신앙과 선교에 열정을 다 바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의 신념을 깨뜨린 데에 대하여 베드로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다. 유대인, 특히 로마 제국의 폭정에 대한 증오와 반감에 사무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민족적, 종교적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하여 저들을 찾아 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선교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자기가 지켜 오는 성숙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감히 더럽다거나 속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거듭 이 사건을 신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방에 퍼져야 할 필연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베드로도 역시 과거나 현재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앞을 내다 보는 제자였다. 무릇 앞을 보고 주님의 계시하는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고 창조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고 현재의 상태에 자기 만족을 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설교를 하는 교회가 이렇게 과거나 현재에만 고착되고 만다면 거기에는 선교에 대한 이념이나 꿈이 없는, 고질화된 비생산적인 교회만

을 남기게 된다.

사랑은 앞을 내다보게 한다. 사랑은 언제나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창조를 하지 않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랑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상대방을 통해 미래를 내다 본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자신의 인도주의적인 신앙과 이방 문화의 결합을 본 반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유대교 중심의 편협을 깨닫고 자기가 본 환상의 뜻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게 하는 것이 사랑의 결합이다. 기독교 선교의 중대 전환점도 이러한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역사적 큰 변동이나 격변을 가져 오는 사건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극히 사소한 일일 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친구, 가족, 및 부부 사이 조그마한 대화 속에서 이러한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 (2) 신뢰와 대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를 든다면 그것은 <대화>라는 말일 것이다. 한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의 문제나 국가적인 정치 문제들을 막론하고 개개인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들 한다. 사실 서로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로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 없이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대화를 함으로써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를 촉진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대화의 광장>이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는 현대인은 과연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대화를 함

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의견의 차이와 이해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 새로운 대립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대화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말하지 않을 때보다 더 악화된 사정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대화는 문제 해결뿐만이 아닌 새로운 문제성 제시까지도 한다.

대화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문제성이란 결국, 대화 이전에 서로의 신뢰가 공동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대화는 언제나 공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화 이전에 서로의 신뢰가 없으면 말을 하는 일에서 아무런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의도를 믿어 주는 일이 없이는 대화가 성립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의 내용에 대한 깊은 동정적인 이해를 가짐으로써 대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서로의 신뢰에서부터 서로의 이해로 발전하는 가운데 대화는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믿고 마음 문을 열어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가질 대화의 자세인 것이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히 극적인 동시에 솔직담백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적 감정과 편견을 순식간에 넘어 서로 믿는 가운데 자기가 겪은 바를 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고넬료가 본 환상이 남들에게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평을 받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 들였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경험을 신뢰하면서 받아 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서 볼 수 있다.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환상(미래상)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미래상이 없는 교회나 신자는 송장과 같은 것이며 생명력이 말라 버린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미래상을 가진 교회나 크리스천은 역시 이웃이나 형제들이 가지는 미래상을 믿고 받아 들인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대화가 이룩되어진다. 이 대화가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은 결코 정복자나 승리자의 교만한 태도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이 세상과 화해를 이룩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정복을 하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남을 설득하거나 이끌어오는 방식으로 설교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 무슨 수단으로든지 교회에 이끌어 오면 그것으로 모든 전도가 다 이루어지는 줄로만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설득이나 강요가 아닌, 조용한 가운데 서로 만나는 일 그리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며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정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현대 교회의 꼭 아쉬운 점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가장 중심적인 점을 명심해야겠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서로의 신뢰는 두 사람의 인격적인 힘이나 세련된 사교술로 배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

정을 당하고 새 출발을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남을 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 주신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확신할 때에 나도 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했기에 고넬료를 믿었던 것이다. 고넬료의 문벌이나 찬란한 계급이나 또는 인격 때문에 믿어 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인간의 대화의 근본인 신뢰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신다는 감사의 확신이 앞서야 할 것이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교회 역사의 전환점인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관계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 속에 뚜렷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